

## 부인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의 관계

박 경 린\*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이 영 속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성격성향에 따라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를 조사하고, 부부의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279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변인(학력, 경제수준, 결혼기간), 성격유형(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 갈등대처방법(덮어두기형, 지배형, 타협형, 통합형, 회피형) 및 부부간의 갈등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부인의 학력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에서는 대졸이상의 부인이 고졸이하 부인보다 덮어두기를 적게 사용하는 반면 지배형이나 통합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인 경우보다 중·하층인 경우 지배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부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에서는 판단기능인 사고형/감정형에 있어서 사고형 집단이 지배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양식인 판단형/인식형에 있어서 판단형 집단이 타협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내향형/외향형, 감각형/인식형 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갈등대처방법의 설명력이 16.0%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사회인구학적변인 4.7%, 부인성격변인 4.3%의 순이였다. 구체적으로, 갈등대처방법이 통합형일수록( $\beta=-.33$ ), 지배형이 아닐수록( $\beta=.22$ ),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beta=-.19$ ), 부인의 성격이 감각형일수록( $\beta=.17$ ) 그리고 외향형일수록( $\beta=.15$ ) 부인들은 남편과의 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부들의 결혼생활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갈등대처방법인 반면, 개인이 선호하는 성격유형은 부부갈등을 결정짓는데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질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해 왔고,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격을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부가 서로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부부들에게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부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요망된다.